



#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하 노찾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는 실로 만만치 않다. 그것은 그 이름이 80년대 후반 대중가요계에 파열구를 내고, 민중가요라는 새로운 노래문화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냈던 한 노래 팀을 가르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엄혹한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노래문화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노찾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80년대 대학가에서 시작해서 내내 흘러왔던 노래운동의 공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노찾사’의 창립멤버이며 지금은 성공회대 교수로 있는 김창남 씨가 어느 토론회에서 말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노찾사는 80년대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찾사를 태동시켰던 사람들도 노찾사가 지켰던 노래들도 8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들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노찾사는 80년대의 성과물입니다. 그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노찾사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80년대의 성공이고 노찾사가 쇠락했다면 그것은 80년대 시대정신의 쇠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80년대를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노찾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평가는 여전히 이르다. 공공연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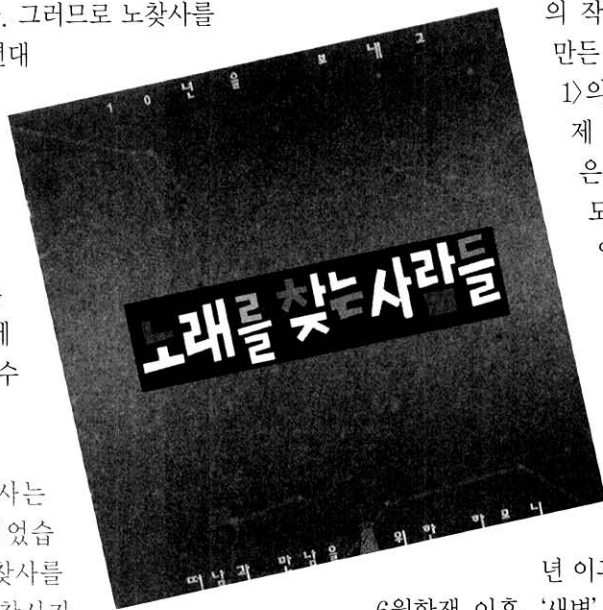
## 노찾사의 등장

이 ‘노찾사’란 이름은 아침이슬의 작곡가 김민기 씨가 주도해서 만든 음반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실제 이 음반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대학 노래모임의 성원들이 모여 만든 최초의 전문노래모임 ‘새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84년에 만들어진 이 음반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널리 유통되지 못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만 알려졌다. 노찾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건 87

년 이후 일이다.

6월항쟁 이후 ‘새벽’을 중심으로 한 노래운동의 주축들이 모여 새롭게 열린 대중문화 영역에서 활동할 팀을 만들기로 하고, ‘새벽’에서 ‘노찾사’이라는 노래 팀을 만들어 분리시킨 것이 그 출발이라 볼 수 있다. 그 해 가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첫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이후 계속되는 공연에서 성공을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를 찾는 사람들 2>는 무려 90만 장이 넘게 팔려 나갔고 <사계> <술아 푸르른 술아> <광야에서>와 같은 노래는 대중가요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노찾사를



대중적으로 알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노찾사의 대중적인 성공은 87년 6월항쟁 이후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80년대 초반 이후 노래운동이 꾸준히 축적해 놓은 성과- 음악성 높은 곡들과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 가창력 있는 구성원- 때문이기도 했다. 또 선뜻 받아 들이기 부담스러운 전투적인 노래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들을 적절하게 선곡하고, 악기나 편곡에서 대중가요의 관행을 받아들여 조화롭게 결합해 낸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 노찾사 2집 이후

2집의 성공으로 노찾사는 노래운동-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노래모임으로 떠올랐지만 이 성공은 한편 부담이 되기도 했으리라 짐작된다. 91년 4월에 발매된 3집 음반은 전작만큼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못했는데 주요한 창작자의 한 사람이었던 안치환이 솔로가수로 독립, 성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내부 진통을 겪은 점 등이 새롭게 만든 노래들이 선곡된 예전의 민중가요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 점이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후 공연에서는 뮤직다큐멘터리 양식을 개발하여 노래와 영상,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노래 80년사 <끝나지 않은 노래>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94년에 발매한 4집 음반과 10주년 기념 음반 <떠남과 만남을 위한 하모니>를 끝으로 90년 후반에 들어 활동을 정지한 상태에 있으며 간헐적으로 옛 멤버들이 모여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노찾사는 체계적인 기획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노찾사 기획이란 이름으로 이후 다음기획으로 이름을 바꿔 2002년 월드컵 이후 스타로 떠오른 윤도현을 발굴했으며, 권진원과 노래마을 출신의 이정열이 대중가요계에서 자리 잡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이 밖에도 노찾사의 멤버로 활동하던 멤버들은 산돌노동문화원 합창단을 모태로 한 포크록 그룹 <햇빛세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가수의 한 사람이었던 신지아 역시 연주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아카펠라

음반을 냈고, 김가영과 명인은 독집앨범을 내고 솔로가수로, 다른 연주자와 가수들도 자신의 영역에서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 그리고 숫구치는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길고 특이한 이름이 다른 수많은 '○○를 찾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모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이 이름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나는 거북이라는 힙합 팀이 리메이크한 '사계'와 월드컵 응원가로 해맑은 아이들이 부르는 '그날이 오면'을 들으면서 크게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건 아마도 내가 80년대라는 시대에 어디든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이런 큰 상실감 뒤에 숨은 희망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하고 싶다.

노래는 여전히 울려 나온다. 다시금 공고해진 주류 대중가요와 외면당하는 소수의 목소리 속에서. 또한 여전히 목숨을 던져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국가와 자본이 공모한 카드빚의 오랏줄에 묶여 자신과 그 아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속에서. 사교육에 짓눌린 부모의 한숨과 다시 학교에 갇힌 아이들 속에서. 토끼몰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소를 몰고 나오는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화려한 20을 떠받들고 있는 80의 힘겨운, 그러나 점점 강인해지고 있는 어깨 위에서 노래가 숫구친다.

이 노래를 찾아 사람들 손에 위로로, 무기로 쥐어주는 일이 끝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안 석 희

유인혁이라는 이름으로 <바위처럼><우산><노래만큼 좋은 세상><이 길의 전부>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 음악감독을 지냈고 2000년부터는 유성고밴드에서 활동했다. 음악작업을 하는 틈틈이 노래에 대한 글을 연재해 왔다.